

# 참사람 36.5°C

2022년 5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CONTENTS 목차

## 발행일

2022년 5월 4일 수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



## Cover Story

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더군다나 햇빛이 가장 좋다는  
가정의 달 5월,  
올해만큼은 자녀 어깨 위의  
무거운 책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 04

어린이를 위한 어른의 역할 :  
오늘부터 '스·라·벨'



##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참사람, 참스승  
글 \_ 참사람 독자 심수월





어린이를 위한  
어른의 역할 :

# 오늘부터 '스·라·밸'

Study and life balance

“  
☝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하게 하라.

☝ 둘,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셋,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위 문구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발표한 어린이 인권선언 〈아동의 권리 공약 3장〉 내용입니다. 이는 국제연맹이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한 1924년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선언문은 현재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의 모습은 오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린이' 대신 '얼라'나 '놈'과 같은 비하명칭으로 불리었고, 학교는 커녕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자리에 내몰리기 다반사였습니다. 놀이 문화나 시설 등은 전무한 수준이었고요.

2022년인 올해는 어린이날이 선포된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국에 12만장의 선언문이 배포되고, ‘어린이를 욕하거나 때리지 말자’고 거리로 나와 깃발을 흔들던 때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 과연 우리 어린이들은 방정환 선생의 바람처럼 ‘해방’되었을까요?

### 아동 삶의 질, 35개국 중 31위

2019년 MBC에서 방영한 관찰 예능 ‘공부가 뭐니?’에서는 9세, 7세, 6세 삼남매의 대치동 사교육 라이프가 방송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9세 아동은 14개, 7세 아동과 6세 아동은 각 10개의 학원 및 과외수업으로, 일주일 동안 삼남매 합 34개의 사교육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한 아동들이 놀권리, 건강권, 발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입을 모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OECD 35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들은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순위를 기록해, 국내 특유의 경쟁적인 교육 문화가 아동의 행복 지수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과도한 사교육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림대병원 홍현주 소아과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하루 4시간 이하의 사교육을 받는 아동은 약 10% 정도 우울 증상을 보인데 반해, 4시간 이상부터는 우울증세가 30% 이상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학원에 할애하는 시간 혹은 가짓수가 증가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아지고 정서 불안이 야기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초등학생의 10명 중 8명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자기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하여 ‘불행’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 아이들에게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을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즉 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몇 해 전부터 확산을 거듭한 끝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 어



린이들은 사교육과 학업에 과다하게 시간을 할애하며 점점 삶에 대한 만족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오히려 아이들이 더 바쁜 탓에 쉽게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나 뒤처지게 될까봐, 무엇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마치 보험 구성을 빼고 더하듯 사교육을 쇼핑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자 선물인 것처럼 우리 세대는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고백한다면, 과연 이대로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과도한 사교육 스케줄로 삶의 균형이 깨진 오늘 날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아닌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일 것입니다.

1~2년 미리 배워두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게 돕는 ‘선행학습’ 대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선행행복’이 아닐까요? 어른들의 워라벨과 어린이들의 스라벨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야말로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어린이 해방’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올해, 더군다나 햇빛이 가장 좋다는 가정의 달 5월, 이번만큼은 자녀 어깨 위의 무거운 책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 가족과 함께 학원이 아닌 숲과 들판으로 정답게 떠나보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선행 행복학습이 될 테니까요. KYOBŌ 교보교육재단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참사람, 참스승

글 \_ 참사람 독자 **심수월**



'사람은 모름지기 서울에 가야 성공을 한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눈을 감으신 할아버지는 제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그 한 마디가 왜 이리 마음에 남았던 걸까요. 시내에서 한참, 읍내에서 또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시골에 살던 저는 그 말 되새기며 용감하게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아직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서울로 혼자 공부를 하러 가느냐며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품 안의 새끼를 홀로 서울에 보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날 며칠 단식투쟁까지 감행하는 저를 보며 결국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드시고 서울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서울에 위치한 한 상업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연고지라고는 고향에 사시다 결혼 후 서울로 터를 옮기신 고모님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서 자취 하며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세가 기울어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지출만 해도 생활비 감당이 버거워질 무렵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부업을 도와드리고, 상회를 봐 드리며 돈을 벌었습니다. 성적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입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에서 꽤나 촉망받던 학생이었던 저는 어느새 선생님의 걱정거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1학년 때 제 담임이셨던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던 저를 붙잡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왜 이리 살이 빠졌느냐는 진심 어린 걱정엔 저는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제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거리며 들어주시던 선생님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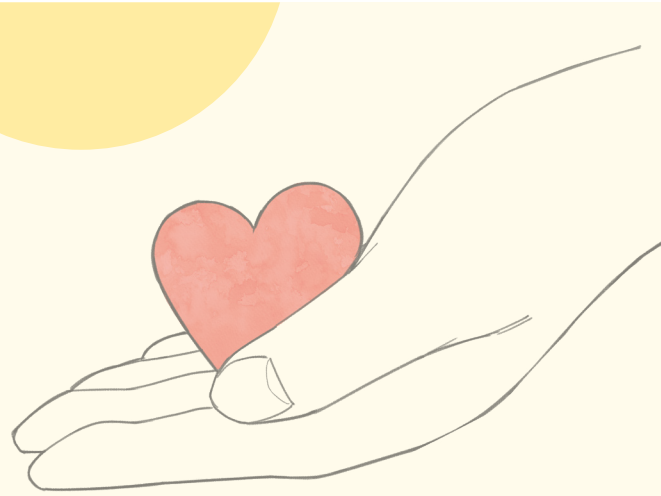
“1학년 학기 초 자기소개 시간에 네가 했던 말 기억하니?”

저는 잠시 눈을 깜빡거리다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서 고향에서 올라와 이 학교에 진학했어.’ 처음 대면한 친구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제가 했던 소개를 선생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스스로조차 잊고 있던 다짐을 기억하고 계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에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주셨습니다. 기댈 곳 없이 메달라 있던 제게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비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저를 또다시 선생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일은 그만두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제게 선생님은 봉투 하나를 아이들아 보지 못하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한사코 거부하던 제게 선생님은 기어이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바라는 건 오직 학교를 다니는 동안엔 일 대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만 열심히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다시 공부에 집중하며 무사히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했던 대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선생님을 찾아봤습니다. 내복이 든 봉투 하나와 선생님이 이전에 제게 주셨던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복이 든 봉투만 건네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던 너를 작게나마 선생님이 도와줬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이 돈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박혀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성공’은 단순히 큰돈을 버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된 것도, 앞으로 남은 생은 작게나마 선생님의 말씀대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성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소소하게나마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리고 미성숙했던 제게 값진 깨달음을 주신 선생님이야말로 제겐 누구보다 귀한 참사람이자, 참스승이십니다.

# 네가 나여서 고마워

글 \_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고다경**

안녕, 고다경. 오랜만이야. 이렇게 너한테 편지를 쓰는 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줄여서 고삼이 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특히 원서 접수를 앞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3학년이 된 기분은 어때? 말로만 듣던 고삼, 20살을 앞둔 기분. 그거 알아?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해.

고삼은 대입 준비로 힘들다고 들었지. 맞아. 실제로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 어디 대학을 가야 하지? 주변에서는 이번이 네 인생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서, 어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너에게 선택하라 말하고 있지.

나는 지금까지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세상이, 가족이, 학교가, 친구가, 사회가. 나에게 늘 정답만을 알려줄 거라 믿어왔어. 그들이 말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래, 여기까지 너도 예상한 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잖아. 맞아. 정확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세상이, 사회는 물론이고 가장 믿었던 가족도 나에게 결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

고등학교 3학년,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대입을 위해 사는 존재였어. 입시가, 대학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물론, 나도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똑같았어. 하지만 첫 시험을 보기 전에 나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었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아니,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었어? 네가 어렸을 때 말고, 올해. 그래, 한 번도 없었어.

주변에서 대학을 정하고, 직장을 정하는 친구들이 내게 묻더라. 너 어디 갈 거야? 무슨 직업 할 거야? 나? 글썄, 취업하는 거.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 분명 어렸을 때, 아니 중학생 때만 해도 나는 직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글을 쓰고 싶었고, 분명 취업보다도 더 큰 목표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부터였을 거야. 주변이, 세상이, 가족이 나에게 묻기 시작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던 대로 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묻던 말 아니었을까? 네가 나에게 '이게 맞아?'라고 물을 때 나는, '그게 중요해? 하던 대로 해.'라고 강요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책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네 곁에 존 키팅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기꺼이 네 키팅 선생이 되겠다고. 그가 그의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쳐주었다면, 나는 너게 '나'를 가르쳐줄게. 주변이 내게 말하러 시작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놓면 네 12년을 날리는 거라고. 나는 노는 게 아니야.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알고 싶었던 공부를.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서, 나는 그때까지도 혼란스러웠어. 이게 맞을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틀린 거면 어떡하지?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때 내 손에 들린 건 책이었어. 오직 그것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나는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어. 특히 학교에서. 고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어. 너도 알지? 일명 수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나는 자유로운 수업 시간에,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 자기계발서, 경제, 때로는 인공지능.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렇게 훌륭한 키팅 선생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그래, 책이었어. 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뛰어난 키팅 선생님들이 늘 곁에 있었어. 세상, 사회,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은 책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라고 말했지. 나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야. 내가 너에게 방법을 제시해준다면, 책은 너게 내용을 가르쳐주거든.



죽은 시인의 사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 기억나?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 키팅 선생님을 보는 장면. 나는 그 장면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

왜 그랬을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

네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꼭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어.

내가 네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너는 들리지 않았어.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읽어. 네 곁에 둔 키팅 선생님들을 믿고,

계속 그렇게 살아. 또 한 번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도, 지금을 기억해.

너는 지금 어때? 내가 가장 잘 알지. 네가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 그리고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게 말해주고 싶어. 내가 늘 네게 하고 싶은 말이야.

고마워. 네가 나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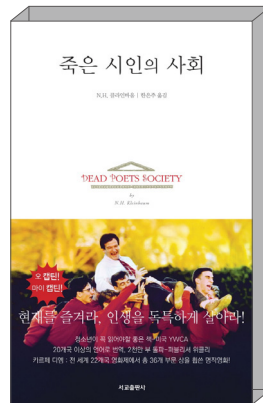
## ‘죽은 시인의 사회’는 어떤 책?

치열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일의 위대함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 소설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래서 더 꼼꼼히 재독되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압박받는 청소년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조우한 키팅 선생님과 그가 실어나르는 문학의 힘으로 치유받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학을 통한 재생과 교육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합니다.

모교에 부임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틀에 박힌 문학 교과서를 찢어버리라고 말하고, 자신을 선장님으로 부르라며 주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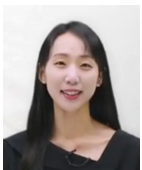
키팅의 말은 늘 미소와 장난기를 동반하지만 그 어떤 권위적인 명령보다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낭만적 심성과



카리스마는 애어른 흉내를 내며 모범적 궤도 속에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항상 정답을 누가 더 빨리 선취할지 경쟁하던 학생들에게 정답은 없으며 다른 답만 있을 뿐이라고 키팅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답을 구하려면 다른 각도를 취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결국 현실 논리에 밀려 그는 학교를 떠나게 되지만 학생들은 참 스승에 대한 마지막 애도이자 송별의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바로 키팅이 알려준 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르게 호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학생들은 책상 위로 올라가 떠나는 키팅을 불러 세웁니다. “선장님, 나의 선장님!(Captain, oh, my captain!)”이라고요.

비록 키팅은 사라져도 키팅이 각인시킨 정신만은 아이들의 영혼 속에 계속 살아남아 성장해갈 것임을 예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책과 인간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 우 신 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소설가

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읽고, 쓰고, 가르치는 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문학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내면이야기가 숨어있다 믿습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는 문학으로 타오르길 기다리는 불꽃이 깃들어 있다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마침내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문학교육의 길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 ‘현장 속으로’

오늘의 교육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만세작은도서관의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2022년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선포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만세작은도서관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 방정환 선생님의 말맛을 살린 소리극 '호랑이 형님'

하나 둘씩 아이들이 행사장에 들어옵니다. 시끌벅적, 왁자지껄 소리에 공간은 금세 활력이 넘칩니다.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선물을 받고 자리에 앉자 소리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극 '호랑이 형님'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에 소리를 붙이고 이야기를 더해 만든 연극입니다. 조상들의 재치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요, 연극에 빠져들어 집중하는 아이들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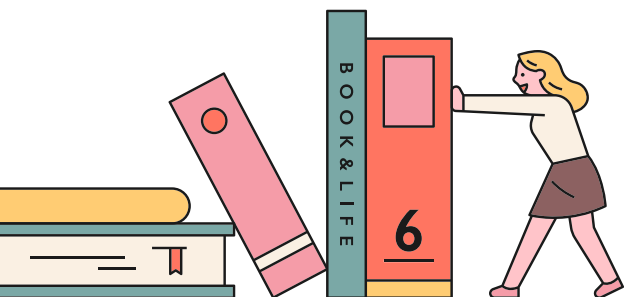
###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체험극 '아버지'

이어서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체험극 '아버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해방' 정신이 재밌게 표현된 작품으로, 아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했습니다.

연극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재밌고 시원해요"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하네요.

### 어린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어린이 찬미'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 고운 마음을 가지고 어여쁜 눈을 가지고 본 것을, 느낀 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시인이다" 만세작은도서관 오현정, 김소연 선생님께서 방정환 선생님이 쓴 '어린이 찬미' 수필을 낭독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순 복덩어리다'라는 문구를 읽을 땐 잠시 울먹이기도 하셨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읽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피켓과 동네 행진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이들의 염원을 담은 피켓을 만들고 행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종이에 알록달록 예쁜 색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마음 편히 놀고 싶다 적었고, 또 다른 어린이는 담배는 싫다고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행진하는 동안 많은 어른들께서 “참 귀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동네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동네 어른들의 관심 속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은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 만세작은도서관

오늘 행사를 기획, 진행한 만세작은도서관은 화성시 서남부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이 행사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기부한 곳, 자원봉사에 참여한 주민, 공간을 기부한 회사 등 나눔의 손길이 끊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확장성을 기반으로 마을의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만세작은도서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마을과 사람을 잇는 도서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청소년의 언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나요?



최근 수도권 한 식당이 '49세 이상 손님'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안 내문을 붙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위치한 모 카라반 캠핑장 또한 40세 이상의 손님을 제한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처럼 서비스 업체들이 시니어 혹은 중장년 고객을 거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몇 년 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젠더갈등'이었지만, 곧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더 큰 갈등이 온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갈등

은 다름 아닌 '세대갈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척과 갈등은 과연 누구의 탓일까? MZ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참사람 36.5℃ 5월호는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대신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은 바로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 알쏭달쏭 알 수 없었던 Z세대 어휘를 낱낱이 해부하여 소개합니다!

어휘



**의미** '나보고 어찌라는거야, 가서 TV나 봐'의 줄임말로 불쾌하거나 강압적 상황에 대한 반발로 활용

**예시** “살 찐 거 나도 안다니까 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쩔티비!”

어휘



**의미** '느낌', '카테고리', '부류', '스타일' 등을 대체하는 포괄적 어휘

**예시** “이 청바지 완전 아이돌 가수 재질이지?”(아이돌 가수들이 입을 법한 스타일의 청바지라는 뜻)

어휘



**의미** '무슨 일이야?'의 사투리를 숫자와 함께 재미있게 표현한 말

**예시** “벌써 방학이 끝나가다니 이게 대체 머션129!”

어휘



**의미** '진짜 텐션(tesnion : 긴장감)', '억지 텐션'의 줄임말로 '찐텐'은 에너지가 넘치거나 흥이 고조된 사람을 말하며 '억텐'은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일컫음

**예시** “철수 여자친구 오니까 오늘 완전 찐텐이네-!”(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니 흥이 고조되어 보인다는 뜻) “영희 너 생일파티 때 억텐인거 너무 티나더라!”(속마음과 달리 억지로 분위기에 맞추는 모습이 티가 난다는 뜻)

어휘



**의미** TVN 인기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주변인의 행동과 옷차림을 따라하는 캐릭터 '손민수'에서 비롯된 어휘

**예시** “너 아이유를 동경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손민수 하는거 아니냐?” (너무 아이유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

어휘



**의미** '핑거 프린세스'의 줄임말로, 본인이 직접 키보드를 두드려 검색하지 않고 남이 정보를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일컫음

**예시** “내일 날씨를 왜 계속 나한테 물어봐-너 완전 ‘핑프’구나!” (왜 직접 검색하지 않고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만 하니?)

어휘



**의미** '훌륭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 God과 ㅅ의 합성어. 자신의 삶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이며 알차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말

**예시** “어제부터 갓생 살기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공부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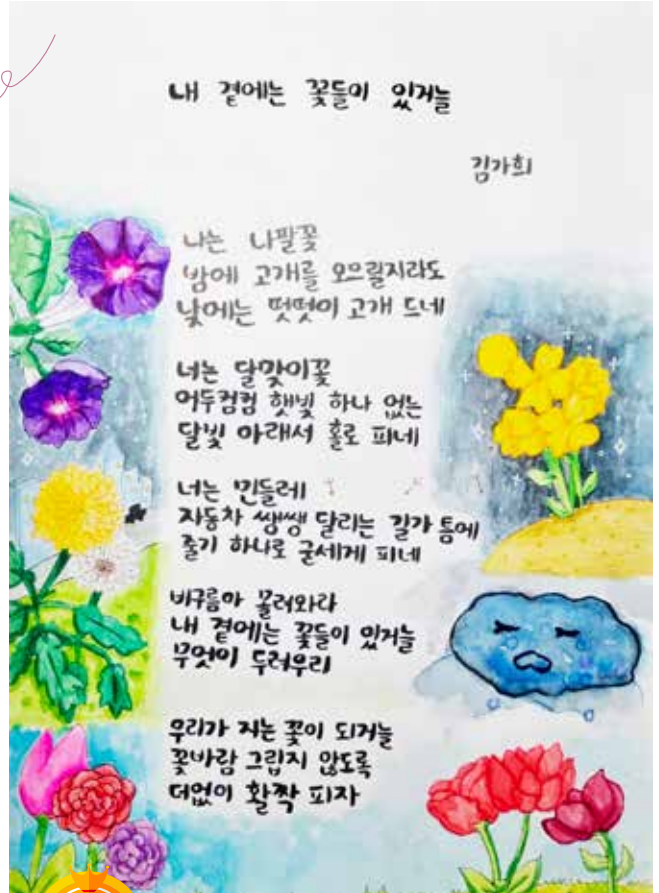
어른이 여러분, Z세대의 유행어 활용법 잘 보셨나요? 특정 연령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에는 곧 해당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비속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어휘들이 대부분이지만,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배척하기 보다는 먼저 의미

를 알고 소통하는 것이 세대차이를 좁히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Z세대와 어른이 세대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비속어 대신 어법에 맞는 적절한 유행어를 함께 고민해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 2022 교보교육재단 연중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보여줘! 너의 꿈·까·곤·꾼' ① '꿈'편 수상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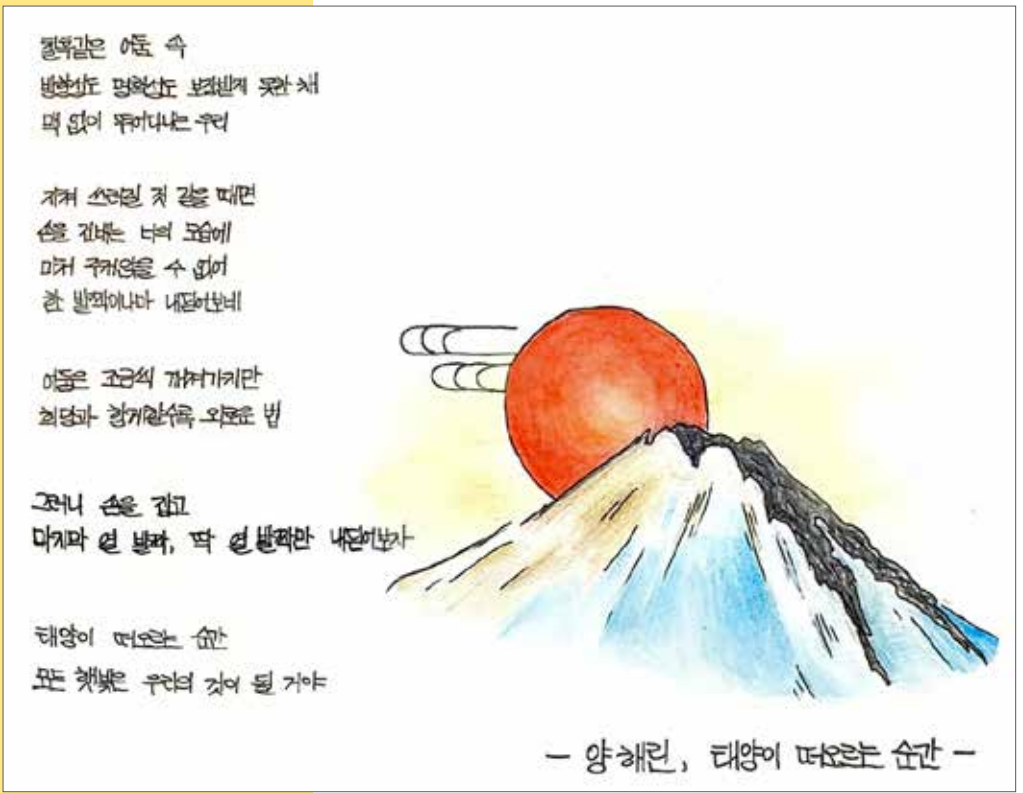
교보교육재단은 2022년 한 해 동안 연중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모전을 릴레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2월까지 약 두 달 간 진행되었던 제1회 '꿈'편은 꿈을 주제로 한 창작 시를 그림과 함께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미래에 대한 진지함을 멋진 솜씨로 담아낸 수상작품을 참사람 36.5℃ 5월호에 소개합니다.



**대상** 내 곁에는 꽃들이 있거늘 \_ 김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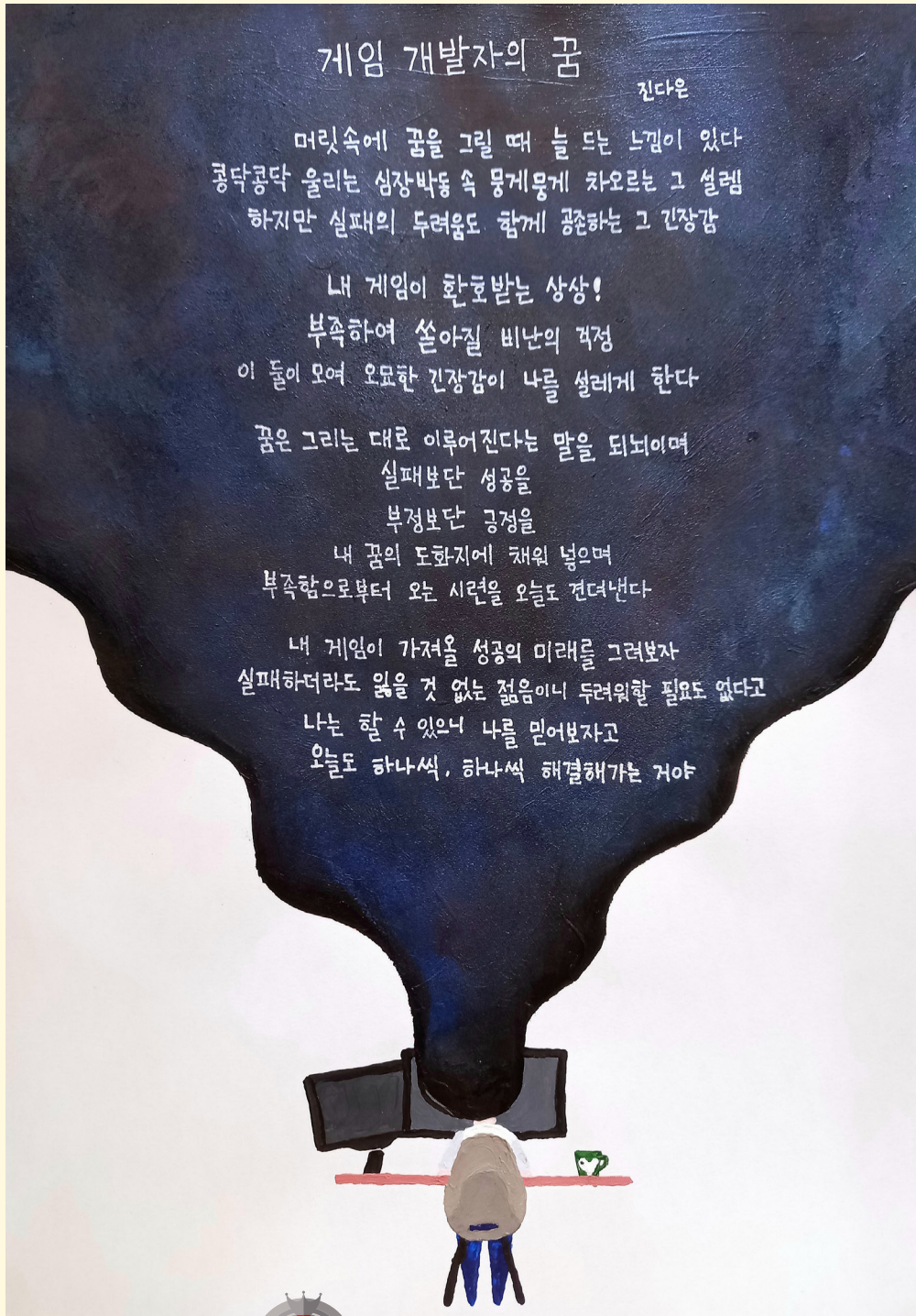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_ 양해린



- 양해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





# 게임 개발자의 꿈

진다운

머릿속에 꿈을 그릴 때 늘 드는 느낌이 있다  
쿵닥쿵닥 울리는 심장박동 속 뭉게뭉게 차오르는 그 설렘  
하지만 실패의 두려움도 함께 공존하는 그 긴장감

내 게임이 환호받는 상상!  
부족하여 쏟아질 비난의 걱정  
이 들어 모여 오묘한 긴장감이 나를 설레게 한다

꿈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되뇌이며  
실패보단 성공을  
부정보단 긍정을

내 꿈의 도화지에 채워 넣으며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오늘도 견뎌낸다

내 게임이 가져올 성공의 미래를 그려보자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 없는 젊음이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할 수 있으니 나를 믿어보자고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거야



게임 개발자의 꿈 \_ 진다운

# 내가 가야할 길

진정중학교 1학년 3반 김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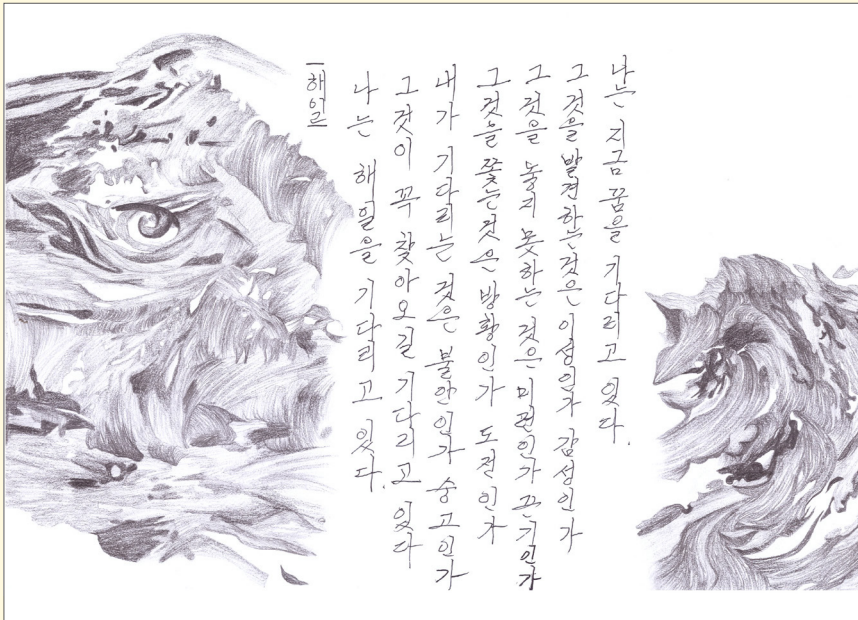
아침마다 세상을 밝히는 해처럼 하루를 시작할 것  
가미처럼 한걸음 한걸음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  
폭포에 깎이면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살 것  
산을 누비는 범처럼 끝까지 자신을 탐구할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뒤끝없이 있는대로 살 것  
바람에 사목치는 나뭇잎 소리를 들을 줄 알 것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다른 이에게 그늘을 드리워 줄 것  
절벽에 매달려 자라는 소나무처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 길이 내가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가야할 길이다.



내가 가야할 길 \_ 김의현



나는 지금 꿈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성인가 감성인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미련인가 끈기인가  
그것을 쫓는 것은 방향인가 도전인가  
내가 기다리는 것은 불안인가 승고인가  
그것이 꼭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해일을 기다리고 있다.



해일 \_ 이승민

# 거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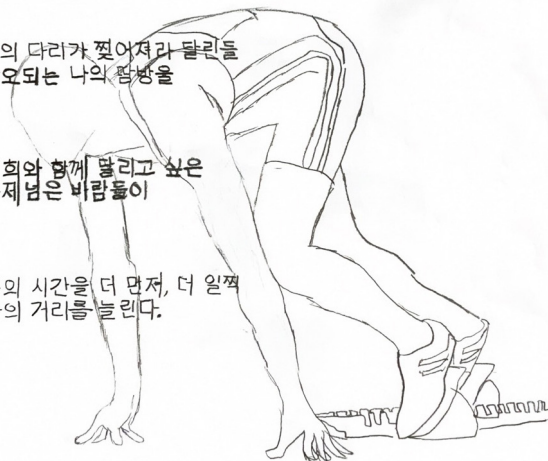
배정훈

모두에게 똑같은 거리가 주어진다 한들,  
무심하게 외면된 속도 차

나의 다리가 찢어져라 달린들  
낙오되는 나의 짐창울

너희와 함께 달리고 싶은  
주제넘은 바람들이

나의 시간을 더 먼저, 더 일찍  
나의 거리를 늘린다.



거속시 \_ 배정훈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프로젝트, 제 2편!

한 편의 노래로 만나는 우리의 '공감 이야기'

여러분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과 고민이 있나요?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한 편의 노래에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산뜻한 노래를 기다립니다.



**공모전명** 2022 연중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보여줘! 너의 꿈. 끼. 끈. 끈'  
**▶ 제2편 : '끼' 편/ 너와 함께라송(SONG)**

**공모대상** 대한민국 청소년(10세~18세)이라면 누구나

**공모주제**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응원과 공감송

- 친구의 꿈과 진로를 함께 응원하는 내용
-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친구들을 위로하는 내용
- 친구관계에 있어 모두가 공감할만한 재밌고 참신한 내용

**#친구관계 #진로 #꿈 #위로 #공감 #코로나**

**출품양식** **작품 분량** 30초~1분 이내  
**파일 형식** 디지털 파일, 촬영 원본

**접수처**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www.kbedu.or.kr](http://www.kbedu.or.kr)

**공모기간**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결과발표** 2022년 6월 말(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참여방법**

- 01 친구에게 전하고픈 응원의 메시지를 고민한다. (팀/개인 가능)
- 02 30초~1분 이내 촬영하여 자유롭게 끼를 발산한다.
- 03 유튜브 개인 계정에 접속한다.
- 04 [작품명\_교보교육재단 공모전 참여] 응모작 업로드한다.
- 05 완성된 작품을 유튜브 링크 및 파일과 함께 온라인 제출한다.

(유튜브 개인 계정 없을시 디지털 파일만 제출 가능)

**시상 내역** 총 21곡 시상 / 시상금 총 380만원

대상	1	각 교보문고기프트카드 50만원
최우수상	3	각 교보문고기프트카드 30만원
우수상	7	각 교보문고기프트카드 20만원
입선	10	각 교보문고기프트카드 10만원



자세히 알아보기

2022 교보교육재단 무장애 나들이 지원 공모

# 눈맞춤 117cm

나들이가 필요한 이유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나들이 경비 50만원을 지원드립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평균 눈높이 약 117cm.

117cm에서 보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보다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불편합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들이 코스를 개발하고,

해당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려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디딩돌, 눈맞춤 117cm로 함께 만들어요!



<b>사업명</b>	2022 교보교육재단 무장애 나들이 지원 사업 : 눈맞춤 117cm
<b>사업대상</b>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심사를 통해 20개 기관 선발 예정)
<b>지원금</b>	기관 당 50만원
<b>모집기간</b>	2022년 5월 15일(일) 자정까지
<b>신청방법</b>	홈페이지 접속 → 기관소개 및 사연 작성
<b>발표</b>	2022년 5월 18일(수)까지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